CREDIT BOND STRATEGY

2026. 1. 8

글로벌채권팀

김은기 팀장
(크레딧/해외채권 Analyst)
creditbond.k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크레딧 레터

단기금리 하락에 따른 단기 크레딧 채권 강세

- 연초 CD금리는 빠른 정상화 패턴 보이고 있으며, CP금리도 순차적으로 하락
-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는 2년물 이하 단기 크레딧 채권 위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요 확대로 단기 크레딧 강세의 온기가 3년물까지는 점진적으로 확산될 전망

작년 11월 이후 급등했던 CD금리 등 단기금리가 연초 다시 정상화

작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던 CD금리가 연초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CD금리는 작년 12월 30일 2.85%까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 대비 35bp까지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그러나 12월말 하루 만에 4bp가 하락하고, 연초 들어 4영업일만에 10bp가 추가 하락했다. 연초 CD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었던 배경은 MMF 등 단기자금이 빠르게 재유입됐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말 193조원까지 하락했던 MMF 수탁고가 최근 220조원을 회복하면서 작년 12월 동안 유출 규모를 모두 회복했다. 아직 CP금리는 2bp 하락하는데 그치면서 하락 속도는 CD금리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CD금리의 정상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CP금리도 정상화 수준에 진입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및 12월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공사채/회사채 발행 대신 CP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CP금리가 크게 상승했지만, 연초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CP 발행이 감소하면서 CP금리도 하락할 전망이다.

단기금리 하락으로 인해 2년물 이하 단기 크레딧 채권 강세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연초효과는 일단 2년물 이하의 단기 크레딧 채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2년물 이하의 단기 크레딧 채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연초 레포펀드의 집행으로 인해 여전채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레포펀드의 여전채 수요가 지속되면서 예년과 다르게 여전채의 초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단기 크레딧 강세의 온기가 3년물까지는 점진적으로 확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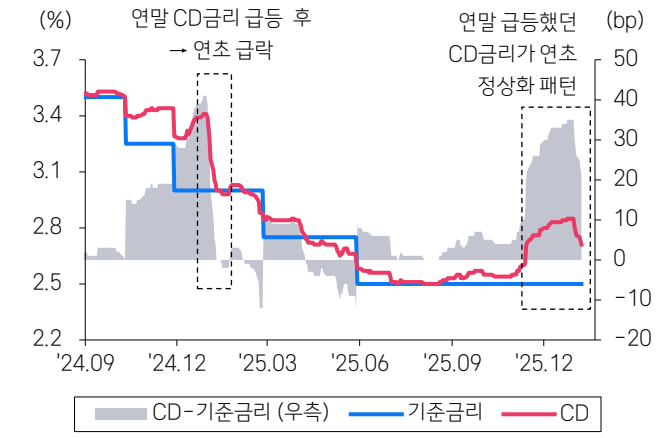
시장의 관심은 최근 단기 크레딧 강세의 온기가 회사채 3년물까지 확대될 지 여부일 것이다. 최근 회사채 AA-등급 3년물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는 작년 말 대비 1.3bp 소폭 축소되고 있다.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예년 대비 본격적인 회사채 발행이 다소 이연되고 있어, 연초 회사채 3년물 강세가 늦게 반영될 전망이다. 레포펀드의 여전채 수요 지속과 증권사 발행어음의 회사채 수요 등을 감안해 보면, 점진적으로 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5년물 이상의 장기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에는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 추세가 확인된 이후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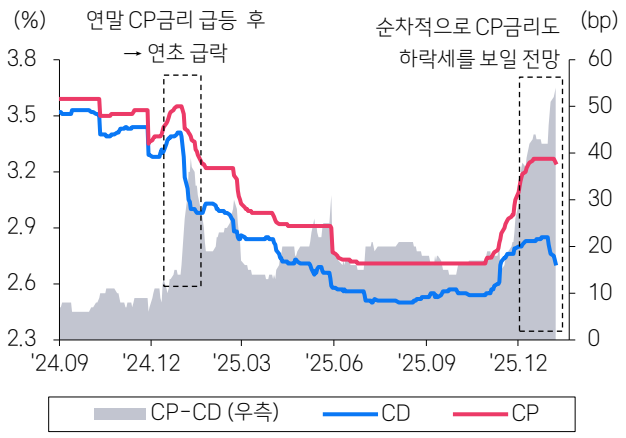
삼성증권

작년 11월 이후 상승한 CD금리가 연초 다시 정상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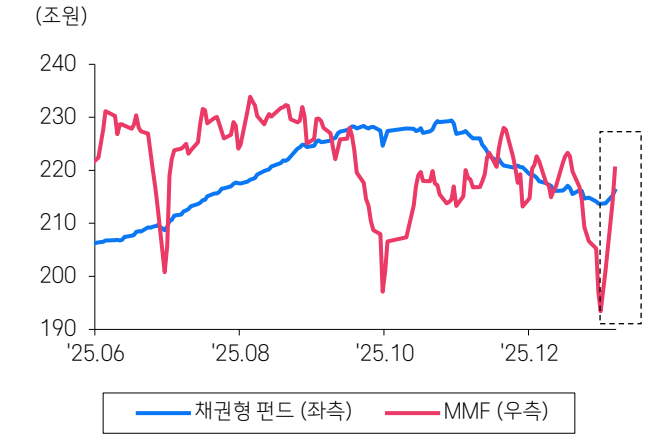
참고: 기준금리 및 CD 3개월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CD금리에 비해 느리긴 하지만, CP금리도 순차적으로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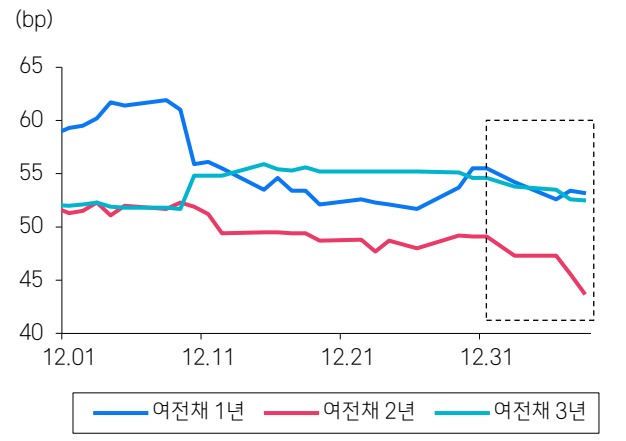
참고: CD 3개월 금리와 CP(A1등급, 3개월)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연초 채권형 펀드보다는 MMF 등 단기자금 위주로 빠르게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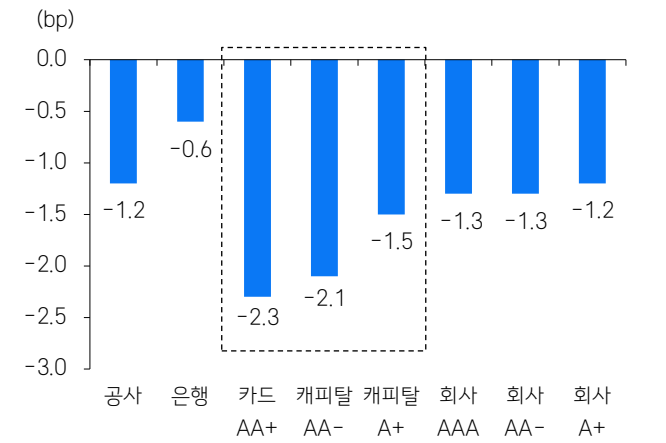
참고: 채권형 펀드 및 MMF 수탁고 추이
자료: Infomax

상대적으로 2년 이하 단기 크레딧 채권 위주로 스프레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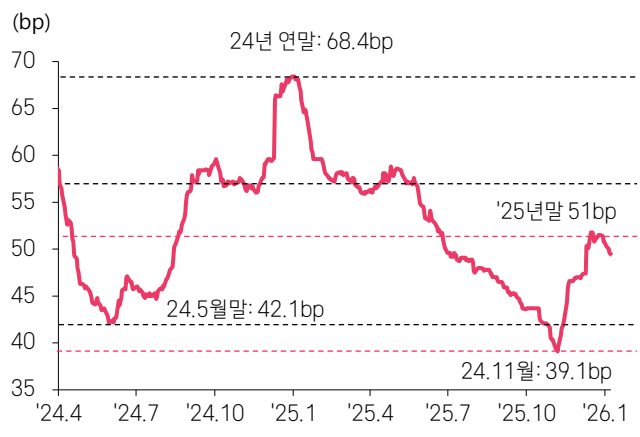
참고: 만기별 여전채 스프레드 추이
자료: Infomax

연초 여전채 섹터 위주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참고: 섹터별/등급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25년말 대비 현재,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연말 확대된 크레딧 스프레드가 연초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 3년)
자료: Infomax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